

인도, 쌀 생산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과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

(INSIGHT-How India became a rice powerhouse - and why it's becoming a problem)

인도는 작물과학 기술의 발전과 수십 년 전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쌀 생산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쌀 잉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동시에 인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항구 폐쇄로 2027년 곡물 생산량 절반 수준으로 감소 가능성

(EXCLUSIVE-Ukraine grain harvest could halve in 2027 due to closed ports, minister says)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화요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곡물 수출 차질로 농가들이 파종면적을 축소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2026년 6,200만 톤에서 2027년 3,000만 톤으로 절반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흑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러시아의 공격에 따른 항만 터미널 및 화물선 피해가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90%를 처리하던 주요 항만의 운영이 중단되어 곡물 수출량이 급감했다.

이집트 공급부 장관, UAE 기업들과 밀 조달 방안 논의

(Egyptian minister discusses wheat sourcing with UAE companies)

이집트 공급부는 화요일, 셰리프 파루크 공급부 장관이 IRH 글로벌 트레이딩(IRH Global Trading) 및 금융서비스 기업 아르캄 캐피털(Arqaam Capital)과 변화하는 경제 여건과 해상 운송비를 고려해 밀 공급 협력 및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집트 국영 곡물 구매기관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이집트 미래(Future of Egypt for Sustainable Development)도 참석했으며, 공급부는 구매 물량과 가격, 합의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U 2026/27 시즌 연질밀 수출량, 11월 15일 기준 전년 대비 1% 증가

(EU 2026/27 soft wheat exports up 1% by November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작된 2026/27 시즌 EU의 연질밀 수출량은 11월 15일 기준 1,051만 톤으로, 일주일 전 1,005만 톤보다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루마니아가 441만 톤으로 EU 최대 밀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으며, 리투아니아(151만 톤), 폴란드(132만 톤), 라트비아(100만 톤), 독일(80만 톤)이 뒤를 이었다.

출처: Thomson Reuters